

# “페퍼스 ‘봄 배구 진출’에 힘 보태겠다”

### ‘자비치 대체선수’ 아포짓 테일러 프리카노 기업은행 상대 데뷔전 팀내 최다 득점 활약 “V리그행 꿈 이뤄서 행복...팬들 환호 환상적”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새로운 아포짓 테일러 프리카노(사진)가 ‘봄 배구 진출’을 외쳤다. 미국 출신인 테일러는 이번 2024-2025시즌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목됐으나 어깨 부상으로 교체된 자비치의 대체 선수로 영입됐다.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알토스와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경기를 통해 V리그 데뷔전을 치른 테일러는 “페퍼스의 일원으로 첫 경기를 하면서 뿌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너무 잘하고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다. 앞으로 더 잘 해서 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테일러는 이날 팀 내 최다 득점인 13점(공격 성공률 27.27%)을 올렸고, 오픈-이동공격-후위공격 등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만들어냈지만, 페퍼스의 승리를 이끄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가 무너진 페퍼스는 IBK에 세트스코어 0-3 완패를 당하며 1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 홈 첫 승을 거두는 데 실패했다.

그는 처음 경험한 V리그 경기에 대해 “내 이름을 불리는 응원을 받는 게 처음이다 보니 정말 환상적

이었다. 팬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테일러가 교체 선수로 갑작스럽게 팀에 합류해 선수단과 합을 맞추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테일러는 “선수들과 길게 훈련하지는 못했지만 점프를 높게 뛰고 공을 세게 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했다. 공격하지 않을 때는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세터들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이원정보다는 박사랑, 박수빈과 연습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모두가 자신감이 있지만 이원정보는 조금 더 호흡을 맞춰야 할 것 같다. 첫 경기도 어느 정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좋아질 날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페퍼스 합류 전 루마니아 리그의 ‘CSO Voluntari 2005’팀과 계약한 상태였던 테일러는 한국행이 쉽지 않았지만 ‘특별한 한국 사랑’으로 V리그에 오는 것이 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23-2024시즌과 이번 시즌 KOVO 트라이아웃에 두 차례 지원했던 만큼 한국 리그에 오고 싶었다. 이전에 계약했던 팀 측에서 이적이 수월하도록 많이 도와주셨다”며 “V리그의 수준이 높



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이 노력한 만큼 한국 무대가 특별하고, 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각오에 대해서는 “당연히 ‘봄배구’다. 페퍼스 선수단이 모두 재능이 넘치다보니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 맞는 사소한 부분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믿는다”고 내다봤다.

매우진 외국인 선수 공백과 함께 새로운 반전을 꿈꾸는 페퍼스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안방 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건설을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수비도 안되네...페퍼스 5연패 ‘뛼’

### IBK 기업은행에 0-3 완패 13일 안방서 현대건설 상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5연패로 1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21-25 13-25 15-25)으로 지면서 5연패에 빠졌다.

페퍼스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무너지면서 이번 시즌 홈 첫 승을 이루지 못했다.

어깨 부상으로 팀을 떠난 자비치를 대신해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는 이날 V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테일러는 팀 내 최다 득점인 13점을 올렸지만 공격 성공률 27.27%에 그쳤고, 양 팀 최다 28득점을 해낸 IBK 빅토리아(공격 성공률 53.19%)와의 대결에서는 밀리는 모습이었다.

1세트 0-3에서 연속 3득점을 올린 테일러가 세터 이원정·이예림과의 호흡으로 오픈·후위 공격 등 공격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페퍼스는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가 흔들리면서 경기를 리드하지 못했다.

양 팀에서 범실이 쏟아지면서 두 팀 모두 확실한 리드를 잡지 못하는 접전이 이어졌다.

16-17에서 페퍼스가 처음 역전에 성공했지만 이후 IBK의 연속 4득점이 나왔고, 상대 고의정의 속공과 빅토리아의 스파이크로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는 페퍼스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1-11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페퍼스가 2연속 득점을 만들었지만 IBK는 8점차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고, 중간에 투입된 김희진의 오픈 공격으로 2세트를 끝냈다.

3세트에서는 페퍼스가 박정아의 킥오픈 성공으로 첫 포인트를 가져왔지만 내리 5점을 내줬다. 동점 상황에서는 연속 범실을 내는 등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한 페퍼스는 15-25, 첫아웃 패배를 당했다.

페퍼스는 외국인 선수의 공백 속에 치른 앞선 3경기에서 공격력은 밀렸지만 짜임 있는 수비로 경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장소연(오른쪽) 페퍼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KOVO 제공>

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페퍼스는 장위 9득점(공격 성공률 50%), 박정아 4득점(공격 성공률 14.29%)에 그쳤고, 팀 리시브 효율 역시 28.99%로 상대(31.91%)에 밀렸다.

지난달 22일 한국도로공사와의 V리그 개막전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첫아웃 승리를 거뒀던 페퍼스는 이후 내리 5경기를 패하며 5위(1승 5패·승점 4)를 기록했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테일러가 투입돼 승점이 트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너무 안돼 경기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 플레이가 단조로웠고, 아웃사이드히터 쪽에서 득점이 안 나와 아쉬웠다”고 경기를 평가했다.

또 “1라운드 시작할 때 도로공사전 승리를 하면서 탄력을 받아야 했는데 외국인선수가 빠지면서 처음 스타트를 못 달았던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럼에도 외국인 선수의 공백 때 국내 선수들이 좋은 기력을 보여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2라운드 해야 할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민경 기자 minky@

## US오픈 우승 이후 3년11개월만에 김아림 LPGA 롯데 챔피언십 우승

김아림(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김아림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653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2위 나탈리아 구세바(러시아)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20년 12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아림은 3년 11개월 만에 투어 2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5만달러(약 6억 2000만원)다.

US여자오픈 우승 당시에는 LPGA 회원이 아닌 12년 전 김아림은 LPGA 투어 회원이 된 이후로는 첫 승을 따냈다.

한국 선수가 올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6월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양희영, 9월 FM 챔피언십 유해란에 이어 이번 김아림이 세 번째다.

이번 우승으로 CME 글로벌 포인트를 65위에서 22위로 올려 상위 60명이 나가는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1, 3라운드는 단독 1위, 2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끝냈던 김아림은 자신의 2승째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했다.

이날 한때 구세바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던 김아림은 10, 11번 홀 연속 버디로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12번 홀(파3)에서는 티샷이 벅거 주위 경사면에 떨어져 위기를 맞았지만, 칩샷이 깃대를 맞고



떨어져 파를 지키는 행운도 따랐다.

이후 구세바와 하타오카 나사(일본)가 1타 차로 따라붙기도 했으나 하타오카는 17, 18번 홀 연속 보기로 무너졌고, 김아림과 함께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구세바는 13번 홀(파4) 이후로는 버디를 추가하지 못했다.

1타 차 리드를 잡고 마지막 홀에 들어선 김아림은 18번 홀(파5)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고진영이 12언더파 276타로 7위, 김효주는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해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인 이소영은 5언더파 283타로 공동 26위, 황유민은 3언더파 285타로 공동 35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 순천시청 여자 유도 ‘적수가 없다’

###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 등 시즌 3관왕 달성

순천시청 유도팀이 최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4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지난 2022년 이번 대회 우승 이후 2년만에 정상에 복귀한 순천시청은 올 시즌 3관왕에도 등극했다.

순천시청은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에서 이번 시즌 첫 단체전 우승을 거뒀고, 이후 8월 2024 KH그룹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지난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 두 개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한 순천시청 양서우·박다솔·신채원·신지영은 준결승에서 포항시청을 3승 2무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동해시청을 3승 1패로 꺾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시청은 개인전에서도 신채원(63kg 이하급)이 은메달, 신지영(78kg 이상급)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팀워크를 앞세워 단체전에서 기량을 발휘한 순천시청은 현재 5명(김지정·양서우·박다솔·신채원·신지영)의 선수로 구성돼있다.

순천시청은 내년엔 78kg이하급 선수 한 명을



추가하게 되면서 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호 감독은 “이번 우승은 전체적인 팀워크가 좋았던 덕분이다. 우리가 선수 다섯 명으로만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잘 따라와준 덕에 대회를 우승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 중앙급 선수를 한 명 더 보강하게 되면서 6명이 된다. 그동안 홀수라 스파링 짝이 안 맞았는데 6명이 되면서 훈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단체전에서도 전력이 큰 보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